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坐像

智異山 內院寺石佛 探查始末

朴敬源

序 言

一九六六年 여름 新羅五岳學術調查團의 一員으로 智異山地區 佛蹟調査에 참가하였다.

그때 慶南 山淸郡 三壯面에 內院寺라는 古刹이 있고 또 그 溪谷에는 도처에 新羅時代의 佛敎文化財들이 산재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①.

內院寺는 六·二五사변중에 완전 소실되었고 겨우 三層石塔 一基와 石燈下臺石등 몇점의 石物만이 남아 있었으나 마당가에 방치된 石佛坐像이 우리 一行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石佛은 많이 風化되었고 목이 절단된 흔적이 뚜렷하였으나 그밖에는 거의 완전한 毘盧遮那坐像인데 어쩐지 下體가 좀 빈약하고 몸통이 扁平해 보이는 하였어도 高古한 기품 있는 가작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사변후 이 절의 復舊를 위하여 一九五三년 여기에 들어 왔다는 圓鏡住持의 말에 의하면 자신도 들은 이야기이나 해방전 洞里사람들이 山中의 「보선암」 벼랑에서 때어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다싶이 佛像의 몸통이 좀 얇기는 하지만 완전한 圓刻像이지 磨崖像을 뜬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사진 一)
우리는 日程을 연장하여 가면서 內院寺溪谷를 살살이 조사 하였으나

이 佛像의 원위치는 끝내 찾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뒤로 內院寺는 住持의 꾸준한 노력으로 거의 복구되었고 이 石佛도 一九七四년 二月 三層石塔과 함께 慶尙南道 地方有形文化財 第七六號로 지정 되어 작은 佛堂 안에 奉安되어 왔다.

한편 釜山市立博物館에서는 수년전 우연한 기회에 永泰二年의 造像銘文이 새겨진 蠟石製石盒을 입수 수장하게 되었다.

이 石盒의 출처를 오랫동안 추적한 결과 이것이 소위 「보선암」의 廢寺址에 허물어져 있는 佛像臺座 속에서 나온것임을 확인 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동안 內院寺 住持의 도움으로 前記 石佛도 바로 이 「보선암」에서 搬出한 당사자를 찾아내어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 石佛과 臺座, 石盒이 아직 三개소에 분산되어 있기는 하나 서로가 完全하게 符合되는 永泰二年 造成의 石造毘盧遮那坐像과 그 八角蓮華臺座임을 確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石佛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最古의 紀年銘 毘盧遮那坐像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중요한 資料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이 佛像의 출현으로 新羅時代 毘盧遮那佛像의 造成은 종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적어도 一세기는 더 올라 간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新羅下代石佛들의 編年이나 佛國寺金銅毘盧遮那坐像의 造成年代에 대한是非에도 새로운 해석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新羅下代의 대표적인 八角蓮華臺座 樣式도 이 臺座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造形上의 문제뿐만 아니라 佛像造成의 背景이나 舍利奉安의 方式에도 주목할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여기에 대하여는 釜山市立博物館의 丁元鄉學藝士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 거기에 미루기로 한다.^② 石盒에 새겨진 造像記에 대하여도 丁元鄉이 그 대략을 紹介한바 있으나 解讀하기 어려운 古拙한 用語와 史讀文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껏 완벽한 解讀을 못하고 있어 이것도 앞으로 學界에 좋은 자료

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石佛과 인연을 맺은 뒤로 二〇년이 걸려서 겨우 그 진모를 파악하게 되었으나 佛像과 臺座는 아직껏 結合을 못한채 분산되어 있다.

이것을 완전히 수습 결합하여 造成年代와 造像의 사연이 명확한 最古의 毘盧遮那佛로서 世上에 밝히는 것이 筆者의 所願이었는데 그 일은 앞으로 좀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우선 이 佛像을 찾아내기까지의 經緯와 관계 자료만이라도 밝혀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石龕과 거기에 새겨진 造像銘에 관하여는 그 일부가 이미 발표된바 있으므로 그것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 諒察하시기 바란다.

智異山과 內院寺

智異山은 新羅의 靈山으로 사람들은 南岳이라 하여 신성시하였던 名山이다.

天王峯을 中心으로 三道에 걸친 山中의 골짜기 골짜기에는 크고 작은 寺院들이 건립되어 新羅佛敎의 一大中心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西南기슭에는 華嚴寺 雙溪寺, 西北기슭에는 實相寺 같은 名刹이 新羅千年の 法燈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유독 東南기슭(慶南山淸郡)에는 여기에 비길만한 斷俗寺 三壯寺 같은 巨刹들이 朝鮮後期에 와서 모두 廢滅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山淸郡 丹城에서 갈라지는 南江의 支流 德川江을 따라 天王峯에 이르러 이 峽谷은——(山淸郡 丹城面·矢川面·三壯面)——南岳佛敎의 中心을 이루었던 고장이다.

이 고을을 西部 慶南사람들은 지금도 行政區域名으로 부르지 않고 德山골이라 하여 輿地 僻地 秘境의 代名詞 같이 통용하고 있다.

또 이 地域은 朝鮮時代 嶺南江右學派의 泰斗 南冥 曹植(一五〇一~一五七二)의 본거지로서 儒林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 세력에 놀려서 壬亂 이후 유서깊은 巨刹들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도처에 옛날의 廢墟만 남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德川江은 德山(山淸郡 矢川面)에서 主流는 智異山 登山路를 따라 法界寺溪谷으로 支流는 大源寺溪谷으로 갈라진다.

이 支流를 따라 올라가면 三壯面 油坪里에 大源寺라는 이름난 절이 있는데 이 溪谷은 水石이 좋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大源寺는 羅代 創建의 古刹이나 新羅時代의 유물로는 石燈材 일부가 남아 있을뿐 질은 六·二五사변후에 복구한 건물들이다.

大源寺의 어귀 三壯面 坪村里에는 三壯寺라는 큰 寺址가 있는데 여기에는 塔身部 以上이 무너진 巨大한 三層石塔一基를 비롯하여 火舍石에

四天王像이 陽刻된 石燈材 幢竿支柱 石窠臺 등의 우수한 石物들이 散在하고, 또 최근까지 上半身만 남은 鐵佛도 전하여 왔으나 洞民들이 새마

을 事業 자금을 얻기 위하여 서울 某氏에게 처분하였다 한다④. (사진二) 이와같은 寺址의 규모나 遺物들의 質을 보더라도 新羅時代에는 상당

히 큰 寺院이었으리라 추측 되는 것이다. 三壯寺에 관하여 晉陽誌 卷二 佛宇에 「三壯寺在塔洞今廢」로 보는데, 一七세기경에 刊行된 金剛經木

板本에 「慶尙道智異山三藏寺開板」으로 된 것이 있으므로 三壯寺는 三藏寺가 정확하며 一七세기말 이후에 廢寺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원래

大源寺는 이 三壯寺에 소속된 庵子였다고 전하며 三壯이란 地名도 寺名에 연유한 것인 듯 하다.

內院寺는 이 大源寺溪谷과는 九〇〇m가량의 分水嶺을 사이에 두고 그 西쪽에 깊숙이 들어간 溪谷의 어귀에 있는 절이다.

德川江은 三壯面事務所가 있는 大浦里에서 갈라지는데 主流는 大源寺溪谷에서 支流는 內院寺溪谷에서 흘러오는 물줄기가 되는 셈이다.

大浦里에서 이 支流를 따라 四km쯤 거슬러 올라가면 內院寺가 있고 여기서부터 또 갈라지는 두갈래의 좁은 溪谷의 골짜기마다 新羅時代의 寺

址와 石造遺物들이 도처에 散在하고 있는 것이다. (註 ⑤參照)

內院寺는 新羅時代에 창건된 절이라는 것이 외에 아무런 寺蹟이 전하지 않으며 有名한 大源寺의 이름에 가려서 지금까지는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나 新羅時代에는 이 溪谷이 大源寺溪谷 못지않게 寺院들이 盛況을 이루었던 곳임을 짐작케 한다.

內院寺 역시 六·二五사면에 완전 소실되었으나 불에 타서 불게 변색한 三層石塔一基와 石燈臺石、碾子石 등의 石造物만이 보존되어 있다.

(사진 三)

앞에서言及한바와 같이 一九六六年 新羅五岳學術調查團 一行은 여기에서 毘盧遮那坐像 一軀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住持스님의 말로는 山中의 「보선암」址에 있던 磨崖佛을 때어난 것이 라 하였으나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佛像의 背面에 시멘트를 발라서 보수한 흔적이 있고 몸통이 이상하게 扁平하며 下體가 빈약 하기는 하나 처음부터 圓刻으로 造成한 것이지 磨崖像을 때어난 것이 아님은 분명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날 소위 보선암址라는 現場을 찾기 위하여 이 溪谷을 살살이 답사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산물로 골짜기 각처에 흩어져 있는 寺址와 石造遺物들을 발견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그 보선암址는 뒤에 舍利石盒의 出處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확인이 되었지만 그곳이 九〇〇m 가 넘는 험준한 山頂이어서 그때는 우리의 발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 보선암址로 부터 이 石佛을 搬出한 경위가 밝혀졌다.

六·二五사면이 나기전 一九四七년경 山淸郡 三壯面 石南里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이 石佛을 반출하여 약 一〇년 동안 자기집에 봉안하였다가 一九五九년경 內院寺에 양도 하였던 것이다.

內院寺의 圓鏡住持는 一九五三년 회진된 內院寺에 들어와서 복구에 노력한 결과 절도 차츰 번복을 갖추게 되고 지방의 신망도 높아지면서 신도들이 이성호 모자에게 권유하여 內院寺로 移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경위가 밝혀짐에 따라 佛像의 造形上의 문스러웠던 점도 쉽게 풀리게 되었다.

즉 이 佛像을 下山搬出한 이성호형제는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頭部를 분단하고, 등과 무릎 아래 부분을 쪼아내었다고 한다. 頭部를 떼 것만은 크구 부인하고 있으나 그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같이 佛像을 부분적으로 쪼아낸 것이 와전되어 보선암址 벼랑에서 때어 왔다고 전하여졌던 것이다. ⑥

石造毘盧遮那坐像

石佛은 현재 法堂 옆에 單間의 佛堂(毘盧殿)을 짓고 隋圓形蓮華臺座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그 위에 奉安하고 있다.

下山 운반시에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파낸 등, 무릎 밑, 목에 시멘트로 보수한 자국이 있으나 대체로 완전한 편이다.

그러나 石質이 이地方 특유의 粒子가 굵은 粗質花崗岩이기 때문에 風化가 심하여 細部의 彫刻이 선명하지 못하다. (사진 四)

(一) 法 量

坐高 一〇八cm + 一〇二cm ⑦

무릎너비 九〇cm

어깨너비 五〇cm

머리높이 三三cm

얼굴크기 二四×二四cm

무릎높이 一五cm + 一〇二cm

臺座

全高 一〇三cm

上臺石 지름 一〇五cm



사진 1 内院寺石佛(1966)



사진 2 三壯寺 鐵佛



사진 3 内院寺 三層石塔

下臺石 지름 一一七 cm

(二) 姿 勢

結跏趺坐(吉祥坐)

(三) 相 好

얼굴이 넓고 볼에 살이 쪼렘 형태에 耳、目、口、鼻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圓滿相으로 위엄보다 자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相好이다.

(가) 머리·螺髮에 肉髻는 알맞는 크기로 머리칼과 뚜렷이 區分되었다.

(나) 白毫·구멍이 크다(최근에 보수)

(다) 目·작은 半眼

(라) 鼻알맞는 크기에 자연스러운 형태이나 콧등이 많이 風化되었다.

(마) 耳·귀가 볼에 달라 붙어서 짧게 보인다. 귓볼(耳朶)도 처지지 않은 형태이다.

(바) 三道·목은 짧은 원인데 이 부분은 절단된 것을 보수 하였기 때문에 三道가 二줄이었는데 三줄이었는데 분명하지 않다.

(四) 印 相

이 佛像은 毘盧遮那佛의 智拳印을 따랐으나 다른 佛像의 그것과는 좀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즉 佛國寺金銅像이나 桐華寺像、鷲棲寺像 같이 兩手를 들어 가슴 앞에서 手印을 맺은 것이 아니고 左手는 무릎 위 下腹部에까지 내려가서 第二指를 세우고 右手로 그 끝마디를 잡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佛國寺像과는 左右手의 위치가 反對이지만 손가락의 끝을 잡은 형태에는 서로 일치되는 점이 있다.

(五) 着 衣

通肩의 法衣는 살결이 들여다보일 만큼 얇고 그 옷주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가는 曲線으로 陽刻하였다.

가슴은 U字形으로 좁게 열렸으나 內衣나 裙은 표현되지 않았다.

옷주름은 원래 얇고 가는데다가 風化가 심하여 선명하지 못하나 가슴의 옷깃과 다리를 감싸고 올라온 옷주름은 비교적 뚜렷하다.

이 佛像은 그 法量이 桐華寺像보다는 약간 작고 鷲棲寺像과는 거의 맞먹는 규모의 石像임을 알 수 있다.

九세기 이후 이와 같은 규모의 石佛들이 많이 造成되어 오늘에 전하여 온 우수한 작품도 적지 않다.

그러한 佛像들에 흔히 나타나는 形式化된 흔적은 이 佛像에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 姿態나 相好나 衣文은 한결같이 자연스럽고 간명하여 과연 八세기의 작품다운 기품을 갖춘 佛像이라 하겠다.

비록 智異山의 깊은 山中에서 造成된 石佛이기는 하나 당시의 비범한 솜씨를 이 佛像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永泰二年銘 石盒

이 石盒과 그 銘文에 대하여도 丁元卿이 「永泰二年銘蠟石壺」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같이 全高一四、五cm 口徑九、〇cm 胴徑一二、三cm 底徑八、四cm 뚜껑을 뺀 盒의 높이 一一、二cm의 蠟石製 石盒이다. 桐華寺의 舍利盒(高八、三cm)이나 鷲棲寺石盒(高八、一cm)에 비하여 높이가 훨씬 크기는 하지만 뚜껑을 가진 그릇이므로 「壺」보다는 「盒」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여 여기에서 石盒으로 고쳐 부르기로 한다.

이 盒은 「곰돌」 특유의 거무스레한 갈색으로 그릇의 표면에는 별다른 彫飾이 없고 盒身의 上肩部에 한가닥, 下腹部에 두가닥의 雙線을 陰刻

으로 돌렸을 뿐이다. 그릇의 안팎을 물네(轆轤)로 짝은 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表面이 매끄럽지 못하다.

뚜껑의 上面에도 언저리와 중간부분에 盒身과 같은 雙線의 同心圓을 陰刻하였고 內面에는 세결의 蓮華文이 소박한 手法로 새겨졌는데 이것이 유일한 裝飾이라 할 수 있다(사진 五, 六, 七·圖 四)

이 盒은 一九八一年 本館이 우연한 기회에 입수, 수장하게 된 것인데 盒身の 표면에 새겨진 毘盧遮那佛像造成記의 내용으로 봐서 年代가 확실한 중요한 자료임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년간 그 출처를 꾸준히 追跡한 결과 그 경위가 판명되어 이것이 內院寺 石造毘盧遮那坐像의 造像記에 틀림없음을 確認하게 되었는데 그 내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

6·25사변 전후하여 內院寺溪谷은 共匪들의 소굴이 되어서 토벌작전 중이 일대의 山林이 거의 燒失되었다. 수복후 한때 이 지방 住民들은 불타다 남은 나무 뿌리를 火木으로 채굴하기도 하고 형태가 이상한 古木의 뿌리는 木工藝品으로 加工하기 위하여 晉州地方으로 팔기도 하여 農閑期の 부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무뿌리를 캐러다니던 住民들에 의하여 힘든 산중에 있던 石佛臺座 속에서 이 石盒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晉州의 木工藝 製作所에서 여러손을 거쳐 우리 博物館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발견자의 한사람 三壯面 大浦里의 이종상을 알아 냈고 그분을 만나 전후사정을 청취한 다음 그의 안내로 一九八三年 가을 本館 직원 金洪源이 現場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調査者の 보고에 의하면 現場은 地籍上으로는 慶南 山淸郡 三壯面 內源里 山 一五二番地의 郡有林 안에 있는 작은 庵子址로 밝혀졌다.

그곳은 大源寺溪谷과 內院寺溪谷 사이에 分水嶺을 이루면서 東南으로 뻗어내린 험준한 山脈의 中峰 九〇二m 高地의 山頂에 가까운 곳이다.

이 分水嶺을 경계로 東北面 大源寺溪谷쪽은 石南里이고 西南面 內源寺溪谷은 內源里로 구분되어 있다.

이 山頂 가까운 곳에 큰 岩壁의 露頭가 露과 같이 특 솟아올라 좁은 平地를 이루었는데 여기가 이 地方에서는 예전부터 「보신암」 절터라고 전하여 온 곳이다.

이 巨岩의 露頭를 평탄하게 골라서 石佛을 安置하고 庵子를 세운 것이 平地라 해야 겨우 五坪 정도의 넓이고 三方이 絶壁이라서 사진을 찍는데도 불편할 정도라고 한다. (사진 八)

여기에 뒤집혀진 石佛臺座의 石材들이 흩어져 있어 우선 地上에 노출된 石材의 조사와 實測을 마쳤다. (圖 一)

臺座 이외의 石材로는 邊長 五三cm, 高二七cm, 上面에 모난 一段의 받침을 짚아낸 四角形의 臺石 一基가 있을 뿐인데 크거나 놓여진 위치로 봐서 佛前의 香爐臺인성 싶다(圖 三·사진 九).

光背나 그 破片 같은 것은 庵子址에서는 찾지 못하였으나 주위의 낭떠러지를 조사하여 보면 발견의 희망도 없지 않으리라 한다.

이 庵子를 「보신암」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그 내력을 알 수 없으나 여기가 石南寺에 소속된 觀音庵이었다는 것은 「……石南巖巖 觀音巖中在內如……」의 造像銘에서 밝혀진다. ⑧

造像銘

石盒이 내장되었던 石造蓮華臺座의 高찰은 뒤로 미루고 그 造像記부 터 살펴보기로 한다.

銘文은 八? 一 字 一五行 一三六字로 마지막 줄은 二字뿐이다.

井間을 굽지 않고 石盒의 몸통을 돌아가면서 字徑 〇·八cm 정도의 楷書로 알게 陰刻한 것인데 글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고 草書로 쓴 글자도 섞여 있다. (사진 一〇) 또 底面에도 四行 二二字의 草書로 쓴 銘이 있는데 書體가 많이 흐트러져서 같은 솜씨로 쓴 것 같지 않다. (사진 一一)

(一)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二) 釋法勝法緣二僧并



사진 4 毘盧殿에 奉安한 石佛



사진 5·6 永泰二年銘石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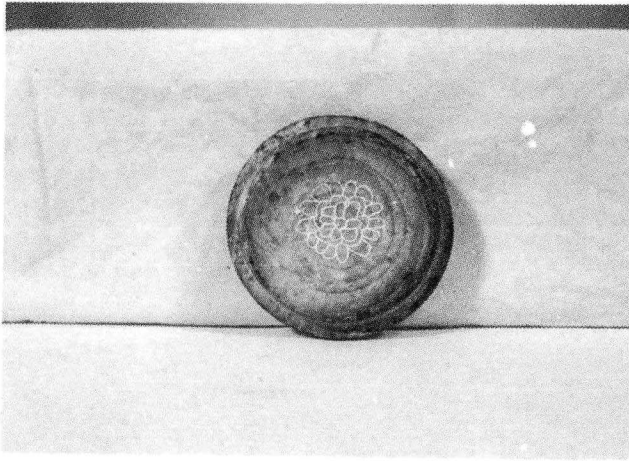


사진 7 石盒蓋內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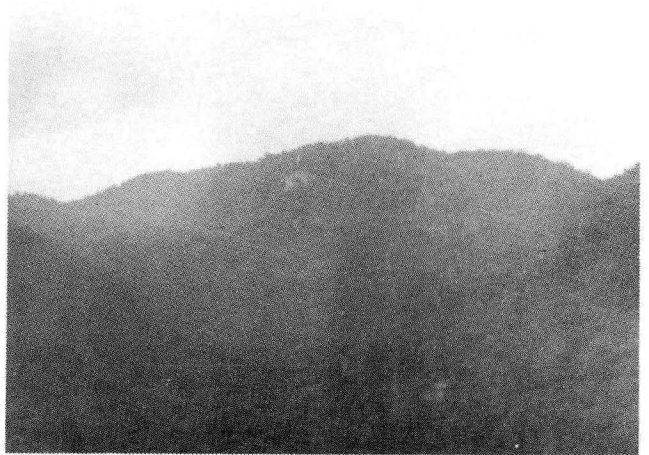


사진 8 觀音庵址 遠景



사진 9 佛前의 香爐台

一지도, 山淸) 이곳은 石佛의 臺座가 남아있는 九〇二m 高地의 바로 산기슭이다.

지난 新羅五岳學術調査때에 답사한 「보선암址」라고 하는 廢寺址가 本石南寺址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金후의 조사를 기다려야 하겠다. 寺名에 「本」字를 붙인 내력은 알 수 없다.

觀音巖(庵) .. 石佛을 奉安한 곳 이 地方사람들은 여기도 「보선암址」라 부르고 있으나 本石南寺의 觀音庵이 당초의 寺名이다.

靈神 字劃이 이상하나 山淸 斷俗寺 神行禪師碑에 「靈神之洞窟」로 보이니 靈神으로 읽어도 무방 하겠다.

難解字와 省劃字

傍點(·)을 찍은 글자들은 다소 문제가 있는 글자들인데 前後의 文脈이나 다른 用例를 참고삼아 아쉬운대로 解讀이 되나 (●)표의 三字는 全然 알아 볼 수 없는 異字들이다.

賜·殤(이)나 賜(사)의 省劃인지? 「賜」로 본다면 新羅無盡寺鐘記에 「爲賜」의 例가 있고 鄉歌에도 「爲賜隱」「爲賜下里」같은 用例를 볼 수 있다. 그러나 第八行 「豆溫愛郎靈神賜·那」을 본다면 賜(사)보다 殤那(이나)로 읽어야 마땅할 것 같다.

願·四行 第二字·七行 第四字 字劃이 이상하나 願爲, 願請內者로 文脈을 잡아서 願으로 읽는다.

逶(지·치·?) 大漢和辭典에는 集韻을 引用하여 「逶走兒」라 하였으니 一行~二行의 「影中逶·那吹尔逶風逶·?」大意는 짐작할만 하다.

爲, 三行 第五字와 四行 第 3 字는 「爲」가 분명한데 九行 第一〇字, 一〇行 第七字·一四行 第八字는 省劃이 너무 심하다. 그러나 頂禮爲那(하나) 隨喜爲內那(하나) 爲尔(하며)와 같이 쓰여진 「爲」字로 추정 한다.

吏道는 并內 成內 在內如 請內者 見內人那, 聞內那, 爲內那 誓內之 是在之 爲? 賜, 賜那 爲那 爲尔 吹尔와 같이 도처에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또 후세까지 많이 쓰여진 略字 ホ(等) 尔(爾)들이 이미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銘文을 解讀 考證하는데 參考가 될 것 같아서 新羅竅興寺 鐘銘을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이 鐘은 對馬島에 전하여 오다가 明治初年 神佛分離소동에 亡失된 것이는데 이 鐘銘中 必要한 부분만을 뽑아본다.

大中□年 丙子八月三日竅興寺 鐘成內矣……

中略

願爲內等者種種施賜人乃見 聞隨喜爲賜人乃皆無上菩提 成內飛也 (傍點筆者)

下略

大中□?年은 唐 宣宗 一〇年으로 新羅 文聖王 一八年(八五六A, D)에 해당하니 이 造像銘보다 九〇年 뒤에 鑄成된 鐘이다.

이 鐘銘에도 吏讀文이 섞여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읽어진다. ⑨ (中略) 願하옵은 (願하옵건대) 여러가지 배운 사람이나 見聞隨喜하신 사람이나 다 無上의 菩提를 닐을안나야……

앞의 造像銘과 비교하여 보면 「사람이나의 那 대신 乃를 쓴 것 이외에는 문투가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서 「成內飛也」成은 「니을」飛는 「날」의 「나」音을 借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造像銘 三行 過去爲爲? 賜豆 溫哀郎」의 爲 다음은 飛字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釜山女子大學 金永信教授는 「…并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의 句節에 대하여 「過去를 받들어」라고 返讀할 수는 없으니 「二僧이 「아울러 받들어」로 내리읽고 「過去爲飛賜」의 飛字를 「나」로 읽어 「過去하나산」 또는 「지나가 날으산(하늘로)」으로 읽어진다는 見解를 제시 하였다. 또 一一行 「影中逶·那」의 ?를 「類」로 보고 「그림자(허황 무상한 것)

에 치달리는 무리나」로 읽어지며 「三行」:業滅尔自毗盧의 「自」는 「스스로」 보다 壬申誓記石의 「今自」의 예에 따라 「三惡道の業報가 없어도 지므로해서」:로도 읽을수 있다고 하였다.

底面の 銘文은 송곳 같은 것으로 새긴 흠집글씨가 되어 第一行 「內物是在之」 이외는 거의 判讀하기가 어렵다. (사진 1-2)

造像記의 事例와 記錄方式

造像記는 佛像造成의 緣由를 彫像의 肢體나 光背 臺座 등에 記錄한 文字를 말한다.

佛像이 金銅이나 石像일 때는 陰刻한 것이 보통이나 鐵像에는 처음부터 陽刻으로 鑄成한 것도 있다. ⑩ 아마 鑄成後 陰刻하는 데는 기술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木像에는 직접 墨·朱로 記入하거나 貼紙墨書한 것도 있고 畫像에는 畫面的 餘白이나 下部에 空欄을 마련하여 墨書나 朱書로 記入하기도 한다.

또 慶州 鑿藏寺阿彌陀如來 造像事蹟碑 같이 따로 碑石에 새겨서 세우거나 紙布에 墨書하여 胎內에 腹藏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이 소위 胎內銘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時代가 내려갈수록 그 例가 많아지는 것 같다.

造像記는 日時와 人名으로 造像의 사실만을 기록한 간단한 것에서부터 甘山寺 石造阿彌陀如來造像記 같이 長長 四〇〇字 가 가까운 것까지 있으나 그 대상이 佛像이나 檀越의 所願을 表明한 誓願文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造像記가 紀年銘인 경우는 그것이 곧 佛像의 絕對年代를 알 수 있는 基本史料로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즉 그 時代의 造形樣式, 書法, 製作技法 등 美術史研究의 기준이 될뿐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는 歷史 信仰 風俗 語文 등 여러 면으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 造像記와 그 施銘方式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造像記를 佛像의 어디에 새기거나 써넣는나 하는 것은 佛像의 形式이나 그 材質에 따라 一定하지 않으나 時代에 따라서는 약간의 變化가 있는 듯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造像記들의 記銘部位와 그 방식에 대하여 事例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⑪

光背(後面)에 施銘한 것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 (金銅)

辛卯銘金銅三尊佛 (金銅)

永康七年銘金銅光背 (金銅)

建興五年銘金銅光背 (金銅)

癸未銘金銅如來三尊立像 (金銅)

甲申銘金銅釋迦如來坐像 (在日) (金銅)

鄭智遠銘金銅如來三尊立像 (金銅)

甲寅年銘金銅釋迦如來像光背 (在日) (金銅)

甘山寺石造阿彌陀如來立像 (石)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石)

僧伽崛石佛坐像 (石)

佛像에 直接施銘한 것

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左腕) (鐵)

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背) (鐵)

芬皇寺出土新羅石佛坐像(背) (石)

星州石佛坐像(背) (石)

宣德銘新德寺銅造觀音坐像(底) (銅)

坡州德隱里石佛(背) (石)

正德銘羅漢石像(底) (石)

崇德九年銘石造如來立像(右側) (石)

光州觀音寺木佛(底面에 黑書帖付) (木)

水鐘寺金銅如來坐像(底面銀板) (金銅)

臺座에 施銘한것

癸酉銘青銅神將立像(前面) (青銅)

高麗青銅尊者銘(前面) (青銅)

成化二十年造佛像臺座 (石)

崇禎元年銘水鐘寺金銅毘盧遮那坐像(底) (金銅)

榮州浮石寺木佛坐像(墨書) (木)

佛像의 周圍에 施銘된것 (磨崖·佛龕·碑像等)

新羅斷石山神仙寺(上人巖)造像銘 (磨崖像)

防禦山磨崖三尊像(右下面) (磨崖像)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四面石像(四面) (石像)

癸酉銘三尊千佛碑像(兩側面) (碑像)

戊寅銘蓮花寺四面石像(兩側面) (石像)

己丑銘阿彌陀佛諸菩薩石像(背) (石像)

太平二年銘磨崖藥師坐像(右面) (磨崖)

南原鄭嶺峙磨崖佛 (磨崖)

泉隱寺金銅佛龕(後面) (佛龕)

八公山宣德八年磨崖佛 (磨崖)

康熙五十年銘持國天王石室 (佛龕形石室)

乾隆二十八年安養三幕寺三尊佛 (磨崖)

雲峰女院峙磨崖如來坐像 (磨崖)

其他(間接의인 方法으로 施銘한것. (舍利裝置, 腹藏, 其他)¹²⁾

內院寺石造毘盧遮那坐像(臺座內石龕) (石)

瑞州浮石寺金銅觀音像(胎內 紙本墨書) (金銅)

成佛寺青銅阿彌陀三尊坐像(胎內 紙本墨書) (青銅)

高麗丁未銘塔像銅板(銅板) (銅)

恩津灌燭寺石造觀音菩薩立像(自毫板 墨書) (石)

木造三尊佛龕(胎內絹本 朱書) (木)

芬皇寺藥師如來立像(木造藥壺蓋)

慶州鑿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

이 밖에 佛國寺 金銅毘盧遮那佛讚文이나 昌寧 仁陽寺塔金堂治成碑 같은 造像의 事實이 記錄된 文獻이나 金石資料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造像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以上の 事例에서 보다싶이 內院寺石造毘盧遮那坐像의 造像記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獨特한 方式으로 記銘 藏置되어 있다. 즉 中臺石에 藏置한 舍利龕에 새겼다는 것은 이 佛像이 石像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뿐 本意는 法舍利로서 陀羅尼를 佛像의 胎內에 奉安하려는 造像供養者의 意圖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造像方式은 八세기 중엽에 벌써 일반화되었던 것을 여기에 서 알 수 있다.

筆者가 평소에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오던 것은 九세기 이후 新羅下代에 毘盧遮那佛을 위치하여 많은 石造坐佛들이 널리 造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造像銘을 俱存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內院寺石佛은 어떠한 暗示를 우리에게 던진것 같기도 하다.

즉 新羅下代石佛들의 造像銘은 이 石佛처럼 臺座의 內部나 또는 그地에 藏置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새로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이 時代의 石佛 중에는 이미 臺座에서 유리된 것도 적지 않으나 앞으로 移動이나 보수시에는 臺座의 內部는 물론 그 地下施設에 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石佛의舍利藏置

內院寺毘盧遮那石佛의 石盒 안에는 靑銅製의 長方形小函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산화하여 거의 재가 된 종이 파차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石盒을 최초로 발견한 洞民 중의 한 사람 三壯面 大浦里 이종상의 증언인데 신빙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종상은 이 靑銅函이 성냥갑만한 크기로 상당히 작았으나 외형은 완전하였고 그 안에는 재가 된 종이 밖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재를 버리고 靑銅函은 자기집에 가져와서 오랫동안 保存하고 있었는데 近年에 없어졌다고 한다.

어쨌든 石盒內에 靑銅製의 舍利用器가 內藏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丁元卿은 이와 같은 方式으로 佛像(臺座·中臺石)에 法舍利를 奉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最初의 事例가 될 것이라 하였고 또 여기에 腹藏의 初期樣相을 추정하여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⑬

臺座前埋藏 土器壺

이 石盒과 함께 收藏한 土器壺一點이 있다.

이 土器壺 안에도 사아서 거의 재가 다 된 紙·布?의 부스러기가 흩과 섞여서 차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性格을 띤 埋藏인지 臺座의 舍利奉安과 關聯된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土器에 대하여는 前記 丁元卿의 설명을 요약하여 寫眞 및 實測圖와 같이 引用하여 두기로 한다.

「土器의 크기는 高一八cm 口徑 一一·五cm 底徑 一二cm 이고 정선된 粘土를 胎土로 한 暗灰色의 陶質土器壺로서 重量感이 있다. 胴體의 最大

徑이 中位下方에 있으며 胴體上部로 갈수록 內傾하고 있다. 壺口는 外反하여 口緣部の 끝은 垂直으로 成形하였다……胴體의 下部는 曲線을 그리면서 낮은 곡으로 移行한다. 胴體部는 三個所에 沈線으로 四段區分을 한 다음 最下段를 제외한 各段에 印花文이 施文되어 있다……佛像 앞쪽에 土器壺를 묻어 놓은 것은 어떠한 緣由에서인지 확실하지 알 수가 없으며 壺內部納入品에 대하여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絶對年代를 가진 石盒과 伴出하였다는 점에서 新羅土器編年 研究에 重要한 資料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圖5·사진13) ⑭ 〈丁元卿 前記論文〉

八角蓮華臺座

지금 地上에 남아있는 石材의 實測圖에 의하여 完全한 八角蓮華臺座를 圖面上으로 復原할 수 있다. (圖二)

즉 八角의 下臺와 八角의 中臺에 圓形의 上臺가 각각 單一石으로 간명하게 다듬어졌고 땅 밑에 地臺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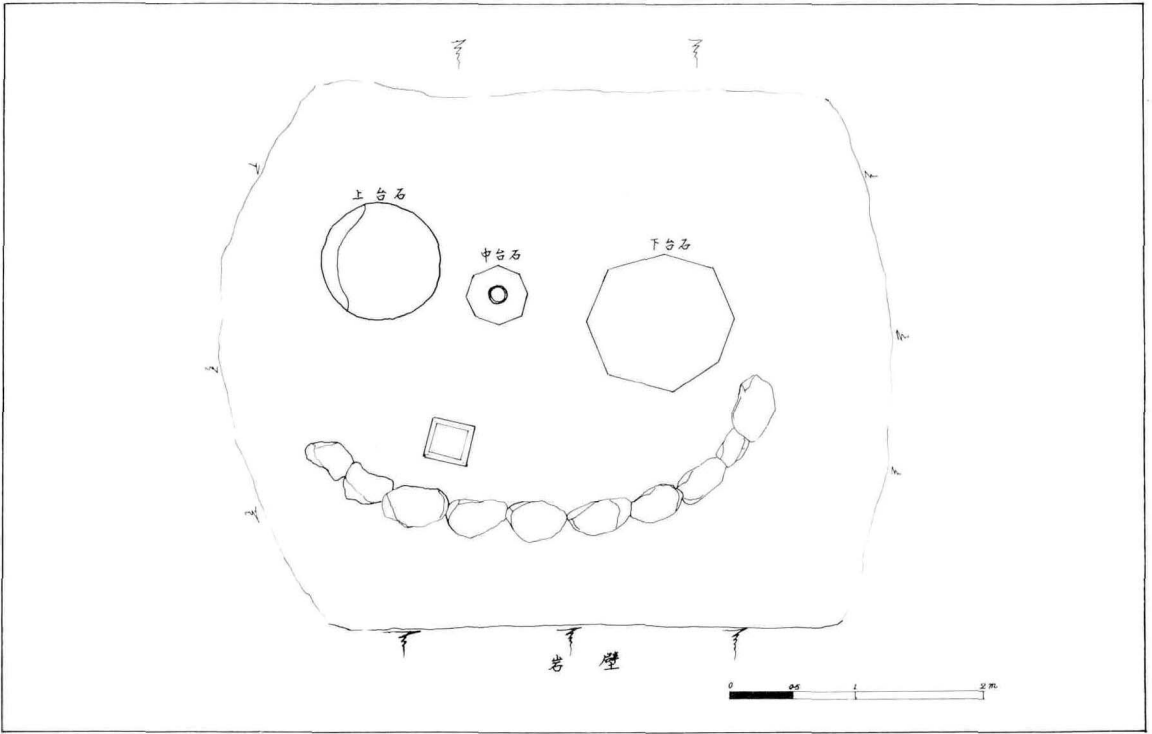
上臺石의 뒷 부분에 길이 七八cm 높이 一九cm 두께 一五cm 가량의 光背 받침이 붙어 있는 것이 이 臺座의 특색이라 하겠다. 사진에서는 圓形의 上臺石하고 이 光背받침사이에서 금이 가서 別石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것은 風化에서 생긴 것이고 單一石에 틀림없다고 한다(사진一四)

八角下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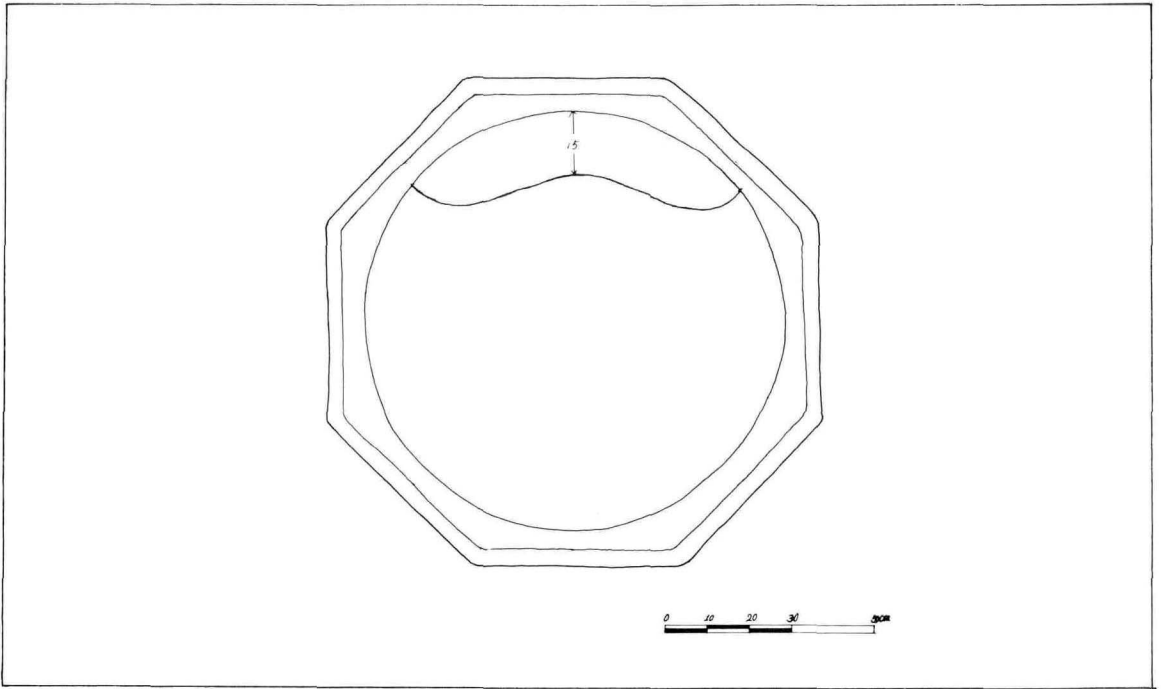
徑 一一·七cm、高 三五cm의 花崗石을 八角形으로 다듬고 밑에서부터 두께 一四cm、三cm로 二단의 모난 받침을 깎아 내고 그위에 一六葉의 複瓣 伏蓮을 새기고 다시 두께 五cm、三cm의 모난 二단받침을 마련하여 中臺石을 받치도록 하였다(사진一五)

八角中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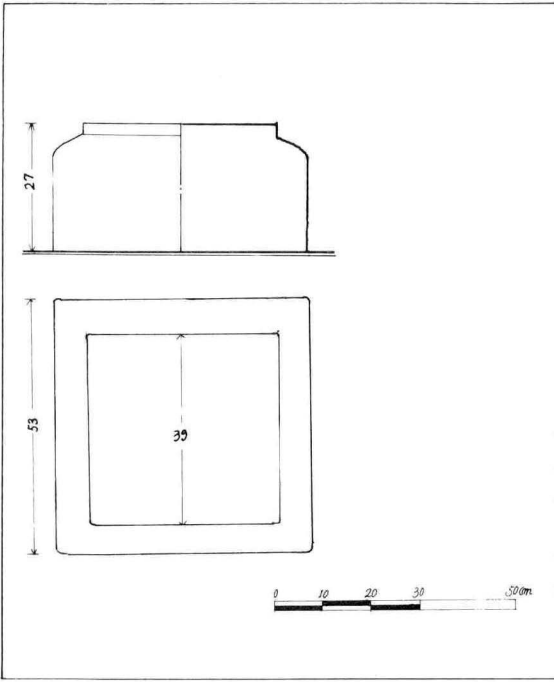
徑 五五cm、高 一九cm의 八角柱形으로 各面에 가는 隅柱形이 陽刻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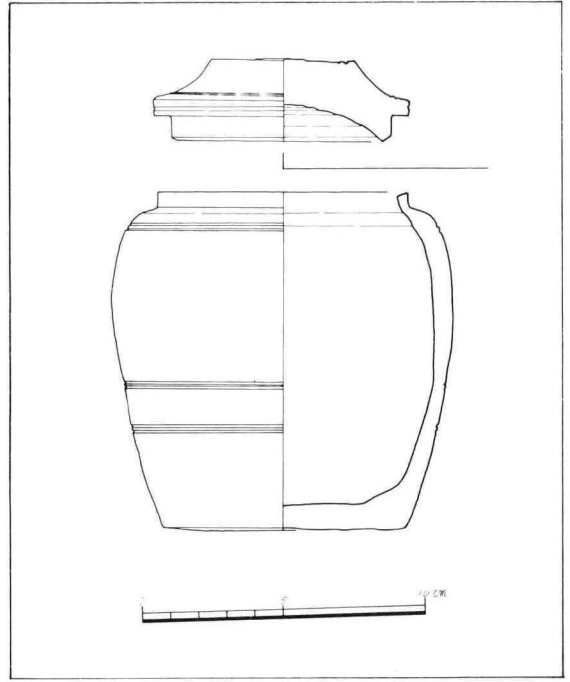
圖面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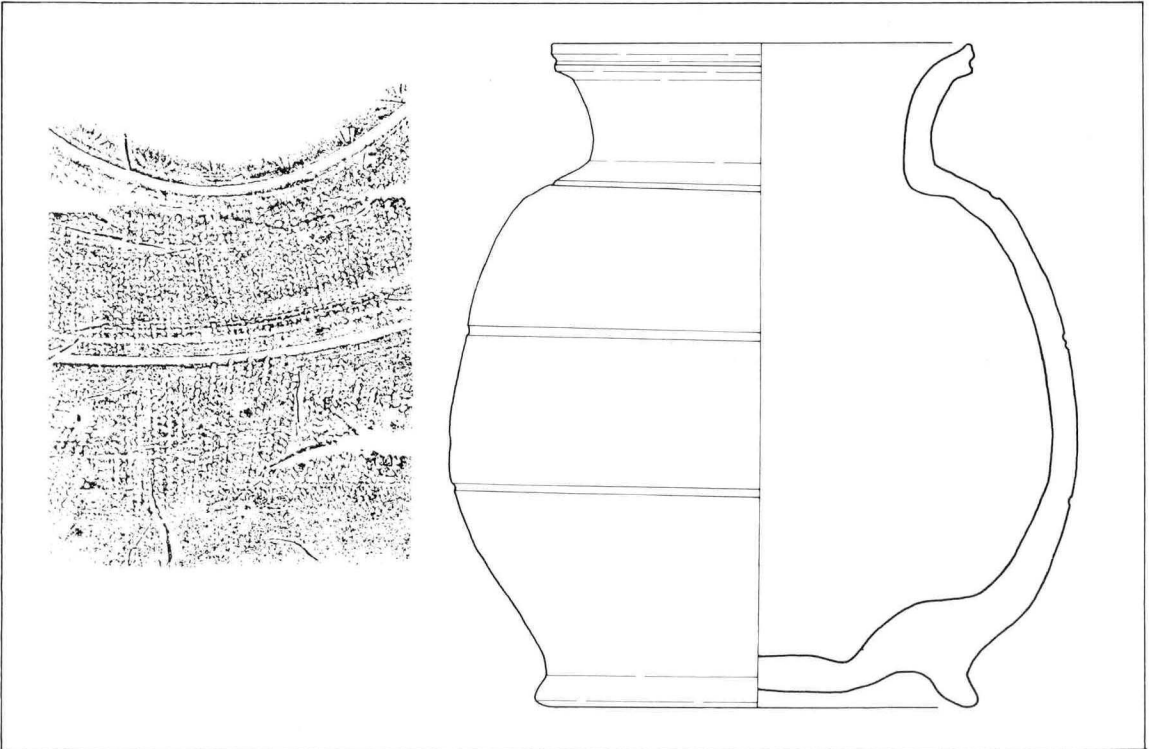
圖面 2



圖面 3



圖面 4



圖面 5



사진10 銘文拓本

사진11 底部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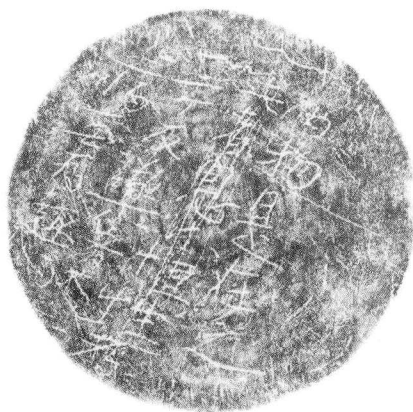


사진13 伴出土器壺



사진12 石盒底面



사진 14 台座上台石



사진 15 台座下台石

이외에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中心部에 圓形의 舍利孔이 貫通되어 있다.

이 圓孔은 徑 一四 cm 인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一二 cm 로 약간 좁아졌다. 蠟石製 舍利盒(全高 一四、五 cm、胴徑 一二、三 cm)의 크기에 맞추어서 뚫은 것이 분명하다(사진 二六)

上臺石

上臺石은 徑 一〇五 cm、高 三〇 cm 의 圓形單一石으로 밑바닥은 中臺石(徑 五五 cm)보다 조금 넓게 徑 六〇 cm 와 徑 七〇 cm 의 八角形 二단 받침을 모나게 깎아냈다.

그 위에 一六葉의 複瓣仰蓮을 二重으로 새겼다. 上臺石에 光背받침이突出되어 있음은 앞에서 言及하였다. 그러니까 上臺石전체의 높이는 이 光背받침을 합하면 四九 cm 가 된다. (사진 一三)

따라서 이 臺座의 全高는 一〇三 cm 가 되는 셈이나 다른 例와의 비교상 光背받침의 높이를 뺀 八四 cm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八角蓮華臺座 중에서 造成年代가 확실한 대표적인 것은 石窟庵本尊臺座(八세기중엽)라고 할 수 있다.

이 臺座는 地臺石과 下臺石이 圓形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를 金和英은 石窟庵의 建築意匠上 平面이 圓形이므로 여기에 어울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였지만^⑩ 어쨌든 石窟庵 本尊臺座를 八角蓮華臺座樣式의 典型으로 보기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다.

거기에 비하면 이 臺座는 樣式의 가장 基本的인 요건만을 완전충실하게 구비하였고 그 위에 造成年代가 확실하므로 八角蓮華臺座의 典型을 삼을만 하다고 본다.

이 臺座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八角蓮華臺座는 八세기 중엽까지는 그 基本樣式이 정립되었으며 八세기 후반에서 九세기로 내려가면서 받침의 변화 眠象 등의 表面彫飾 蓮瓣의 미화 등 화려한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新羅下代の 毘盧遮那佛像

9세기 이후 新羅下代에 내려가면서 寺院들이 地方으로 擴散하고 各寺院에 毘盧遮那佛像의 造成이 盛行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같은 現象은 新羅社會의 급격한 變化와 信仰의 內面的인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王權이 흔들리면서 地方勢力이 차츰 일어나게 되고 또 禪宗이 널리 퍼지면서 큰 寺院들이 全國의 勝地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러한 寺院들은 대개 毘盧遮那佛像을 造成하여 主尊佛로 奉安하는 것이 하나의 流行처럼 되었던 것이다.

또 造像의 材料도 종전의 金銅像이나 石像 외에 鐵佛의 鑄成이 시작되어 長興 寶林寺와 鐵原 到彼岸寺의 鐵造毘盧遮那坐像、南原 實相寺의 鐵造如來坐像 같은 우수한 彫像들이 새로운 樣式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같은 경향은 新羅下代 佛像彫刻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文明大教授는 이 시대의 毘盧遮那佛像중에서 그 造成年代가 확실한 다음의 六例를 들어서 彫刻編年の 기준으로 삼았다.^⑪

- 一、寶林寺 鐵造毘盧遮那坐像(八五九年)
- 全南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 寶林寺(國寶 第一一七號)
- 二、桐華寺 毘盧庵 石造毘盧遮那坐像(八六三年)
- 大邱市 北區 道鶴洞 桐華寺(寶物 第二四四號)
- 三、桐華寺 毘盧庵 金銅板摩訶毘盧遮那佛坐像(八六三年)
- 同 右
- 四、到彼岸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八六五年)
- 江原道 鐵原郡 東松面 觀雨里 到彼岸寺(國寶 第六三號)
- 五、鷲棲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八六七年)
- 慶北 奉化郡 物野面 皆丹里 鷲棲寺

六、佛國寺金銅毘盧遮那坐像(八八七年推定)

慶北 慶州市 進峴洞 佛國寺(國寶 第二六號)

그리하여 各佛像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樣式의 변천과 造成의 背景에까지 考察한 다음 「이러한 智拳印의 毘盧遮那佛像들은 그 樣式으로 보나 歷史的意義로 보나 名實 함께 新羅下代를 代表하는 佛像으로 보아 좋다」라고 結論하였다.

이와같이 新羅下代 九세기부터를 新羅美術의 第三期로 區分하고 이 時代를 代表하는 彫刻을 毘盧遮那佛像으로 보는 데는 별다른 異論이 없는 것으로 안다.

또 編年의 基準으로 삼은 앞의 一〇五의 事例는 그 佛像 자체에 紀年銘이 있거나 間接的인 자료나 마거의 정확한 年代를 推定할 수 있어서 編年의 기준을 삼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 하였으나 (六)의 佛國寺金銅毘盧遮那坐像의 造成年代에 대하여는 異論이 분분하다.

文明大教授가 이 佛像을 九세기 후반 八八七年的 造成으로 보는 것은 佛國寺事蹟과 佛國寺古今歷代記에 收錄되어 있는 「大華嚴宗佛國寺 毘盧舍那眞興王 文殊普賢菩薩像讚并序崔 舍那 所撰佛文殊普賢菩薩像讚致遠選」이 곧 이 佛像의 造成讚文으로 단정한 데 근거한 것 같다. ⑬

그러나 이 글이 과연 崔致遠이 所作이나 하는 문제와 또 이것을 金銅毘盧遮那佛의 讚文으로 단정하는데도 異論이 많아是非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밖에 文明大教授는 또 하나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智拳印을 한 毘盧舍那佛像이 언제부터 造成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八세기 중엽에 造成되었다고 본 佛國寺 金銅毘盧舍那佛像으로 보아 적어도 八세기 중엽 부터는 造成되었지 않았나 보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필자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어서 九세기 후기로 추정할 적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양식적인 또는 銘文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大毘盧舍那佛像은 金剛頂經에 의해서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中國에서 도 이런 印相이 나타나지는 것은 金剛頂經이 번역된 七五〇년 경이 될 쥬지만 八〇〇년경 부터이며, 적어도 우리나라에 조성되자면 惠日이 귀국한 이후 즉 九세기 초를 지나서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智拳印의 毘盧舍那佛像을 華嚴宗에나 禪宗에서 조성하기 시작하자면 九세기의 四분지 二(八二六~八五〇년)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⑭

라고 하여 佛國寺 金銅毘盧遮那佛의 年代推定이 단순히 그 造成讚文에 의한 단정만이 아니고 密教傳來와의 깊은 관련에서 얻은 결론임을 해명하고 있다.

筆者는 여기에서 이 佛像의 造成年代를 九세기 후반으로 推定하는 樣式上 敎理上의 근거에 대하여 論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內院寺 石佛이 確認됨으로서 우리나라 毘盧遮那佛像의 造成年代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도 一〇〇年은 遡及한다는 사실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佛國寺 毘盧遮那佛像의 造成年代를 구태여 九세기 후반까지 내려잡아야 할 이유의 대부분이 스스로 解消될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內院寺 石佛은 新羅下代 彫刻의 編年에 새로운 基準이 되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 없다.

結 語

일찍이 原位置에서 遊離하여 佛像과 臺座와 舍利盒으로 分散되었던 內院寺 石造 毘盧遮那坐像이 끈질긴 追跡調査 끝에 겨우 그 原狀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八세기 新羅佛像의 새 자료를 하나 더하게 된 것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石佛은 造成年代가 명확하여 造形, 信仰, 語文등 여러 면에서 중요

한 意義를 가진것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一、이 石佛은 永泰 二年(惠恭王 二年, 七六六 A, D) 智異山 石南寺 觀音庵(慶南, 山淸郡 三壯面 內源里)에 造成된 毘盧遮那坐像이다.

二、石佛은 臺座와 光背를 갖추었으며 臺座中臺石에 奉納한 蠟石製石 盒에 造像記가 새겨져 있다. 光背는 破損된 듯하여 아직 確認하지 못하였으나 臺座 上臺石에 光背의 받침이 마련되어 있어 그 存在가 증명된다.

三、佛像은 自然스럽고 安定된 姿勢로서 相好가 圓滿하며 均衡도 무난한 편이다. 石質 관계로 風化가 심하여 刻法이 정교하게 보이지 않으나 八세기 佛像의 高古한 面目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四、臺座는 現在 未너져 있으나 復原하면 八角連華臺座의 基本型에 一點의 加飾도 없는 簡潔明快한 完形이 될 것이다. 石造八角連華臺座의 典型으로 삼을만 하다.

五、造像記는 總二六三字의 吏讀文으로 亡者의 위령과 造像供養僧과 隨喜하는 一切衆生의 業滅을 비는 誓願文이다. 吏讀에는 古拙한 문투가 곳곳에 보이고 略字 草體의 省略字가 섞여져서 解讀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吏讀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六、石盒의 形態나 胴體의 表面에 銘文을 새기는 方式은 뒤로 桐華寺 石塔의 石盒·鸞棲寺石塔의 石盒으로 그 脈絡이 이어지는 것이다.

七、石佛의 臺座 中臺石에 法舍利를 奉安한 것은 이것이 唯一한 事例로서 腹臍의 初期樣式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石塔의 舍利奉安方式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八、新羅時代 毘盧遮那佛像이 일찍이 八세기부터 造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서 佛敎史나 美術史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하였다.

九、九세기 이후 石佛의 造成이 全國的으로 盛行한데 비하여 造成銘이 밝혀진것은 거의 없는데 이 石佛의 舍利奉安과 造像記의 施銘方式은 그러한 現象을 해명하는 暗示를 주는 것 같기도 하여 여기에 付記하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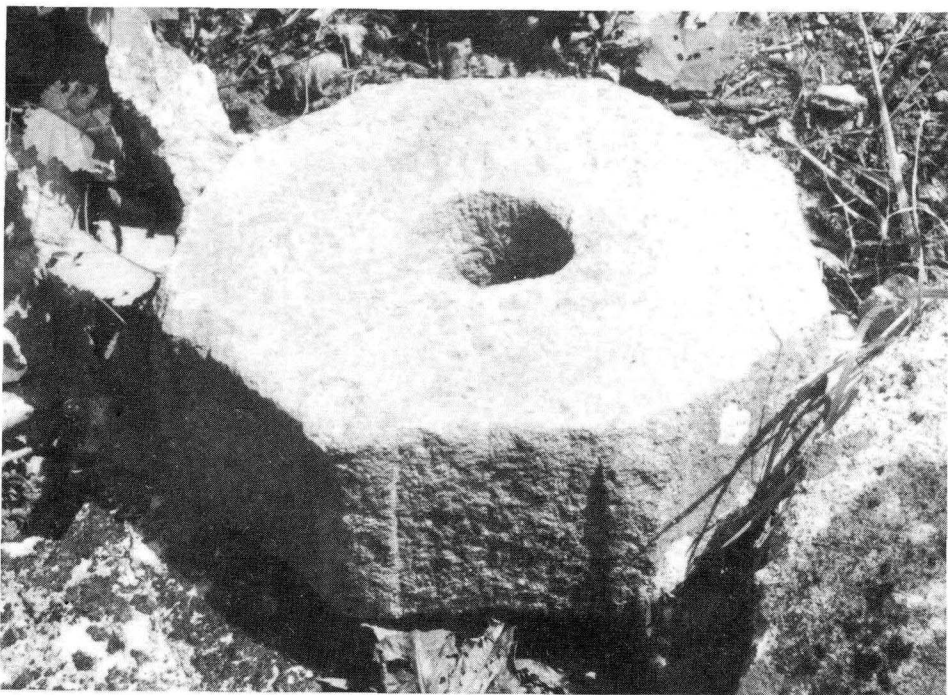


사진 16 臺座中臺石

이 石佛과 처음 對面한 뒤로 未治하나마 그 本연의 面目을 밝혀서 오늘날 學界에 보고하는데까지 二〇년이 걸렸다.

이 길고 지루한 탐사과정에서 꾸준한 격려(독려?)를 아끼지 않았던 東國大學校 黃壽永總長과 釜山市立博物館의 丁元卿·金洪源·內院寺圓鏡法師등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一九八五、五、一)

〔註〕

①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查團의 南岳(智異山) 第一次調査는 一九六六年 八月 四日부터 一週日間, 智異山의 東麓 南原郡 山內面, 咸陽郡 馬川面·休川面, 山淸郡 三壯面을 踏查하였는데 秦弘燮 鄭永鎬 文甲洙 金光洙 金和英 金鍾台 丁仲煥 朴敬源이 참가하였다.

② 永泰二年銘 蠟石製壺 丁元卿 釜山市立博物館 年報 第六輯 一九八三.

③ 內院寺 이외에도 溪谷의 여러곳에서 많은 佛敎文化財들이 조사되었으나 거의 未발표된 일이 없으므로 당시의 手帖에 의하여 주요한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둔다.

南巢三層石塔(三壯面 內源里)

高四m 정도의 新羅一般型石塔, 基壇部를 폭파하여 도파적전의 (최근 도파)상대에 있다.

원래는 雙塔이 아니었는지? 石燈下臺石 一基, 石塔과 같은 시대의 佳作이다. 여기에는 石佛坐像(一m가량의 높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찌기 德山兜率庵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나 행방불명이다.

下內源 절골 石塔(三壯面 內源里)

도파되지 오래 되었으나 塔材의 대부분이 주변에 묻혀 있다. 南巢塔보다 약간 규모가 작으나 新羅時代의 아담한 石塔으로 보인다.

〔보신암〕·三層石塔

뒷날 石佛의 元位置인 소위 보신암址를 찾게되었으나 여기도 동리사람들은 보신암 절터라고 말하고 있다.

상당히 규모가 큰 寺址와 新羅三層石塔 一基가 도파되어 있다. 復原하면 內源寺塔보다 더 좋은 塔이 될 것 같다.

배양이 廢寺址

石築臺와 石階段이 남아 있다. 寺址에서 高麗時代 및 朝鮮初期의 陶磁破片이 많이 발견된다. 金佛像이 출토하였다고 전한다.

외탑 塔址

石塔의 下基壇이 남아 있을뿐이나 예전에는 완전한 石塔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④ 이 鐵佛의 下半身은 불에 녹아 上半身만 남은 新羅時代佛像으로 높이 약 九〇cm, 1965년경 釜山의 業者를 통하여 서울 全忠信氏가 收藏한것까지 밝혀졌다.

⑤ 巨大한 岩壁 밑에 있었고, 또 佛像의 일부를 조사한 것이 이와같은 표현으로 와전된 것 같다.

⑥ 7 무릎 밑을 시멘트로 보수하였으나 아직도 엷은 것 같다. 따라서 이 石佛의 坐高는 적어도 一〇二cm 가량은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⑧ 造像銘의 石南巖敷條參照

⑨ 李弘植 在日朝鮮鐘考 韓國古文化叢書 所收 一九五四

⑩ 寶林寺鐵造毘盧遮那坐像(八五九 A, D)는 右腕背면에 到彼岸寺鐵造毘盧遮那坐像(八六五, A, D)은 背면에 陽刻되어 있다.

⑪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九七六과 文明大 韓國彫刻史 一九八〇의 자료에 의한 것이다.

⑫ 腹臑에서 발견된 造像記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⑬ 丁元卿 前記論文

⑭ 金和英 韓國佛像臺座形式의 研究 II, 史學誌 第四輯 檀國大, 一九七〇

⑮ 文明大 新羅下代 毘盧舍那佛彫刻의 研究(一)(二) 美術資料 第二二號(一九七七)·第二三號(一九七八)

⑯ 文明大 佛國寺金銅如來坐像二軀와 그 造像讀文의 研究 美術資料 第一九號 一九七六

⑰ 文明大 前記(註⑮)論文